

보도자료

2010년 5월 26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담당관 전영만 과장(☎750-1730)
국제기구담당관실 최남호 사무관(☎750-1732) nhchoi@kcc.go.kr

방통위, 가나 통신부와 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Mobile WiMAX를 포함한 이동통신 분야 협력 강화기로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5월 26일(수) 오전, 하루나 이드리수 가나 통신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방송통신 분야 협력 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 Mobile WiMAX를 포함한 이동통신, ▲ 방송통신 서비스 및 관련 정책, ▲ IPTV, 디지털이동방송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 방송통신 기술표준화 및 인증, ▲ 방송통신 분야 인력개발 등을 주요 협력범위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에서 적극적으로 DMB, WiMAX와 같은 ICT에 투자 중인 가나와의 이번 MOU 체결은 우리나라 방송통신 업계에 떠오르는 시장인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과 제조업체들이 가나에 진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어 그 의의가 있다.

현재 가나는 낙후된 유선전화 인프라를 대체하기 위해 '06년부터 고정형 WiMAX 서비스를 도입하여 상용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는데, 가나의 국가통신청(NCA)은 Mobile WiMAX용으로 2.5Ghz와

2.6Ghz 대역의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진행 중('10.6.14. 경매 마감 예정)이며, 5개 사업자에게 10년간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가나 통신부 장관과의 양자면담 중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서비스와 통신장비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가나의 통신 인프라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하여, 가나 통신부 장관은 “발전된 방송통신 서비스와 기술을 지닌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가나의 방송통신시장에 참여해서 양국 간 교류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들의 가나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 방송콘텐츠가 가나에 진출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재 가나에는 2004년부터 한국의 유명 드라마들이 방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크다. 가나의 민영방송인 TV3에서는 ‘겨울연가’, ‘대장금’ 등이 방영되었고, 멀티미디어 그룹채널에서는 ‘이산’을 방영했으며, 국영방송인 GBC에서는 ‘주몽’을 방영한 바 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향후 방송서비스, 콘텐츠, 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경험을 가나와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가나 공무원에 대한 초청연수를 제안하자, 가나 통신부 장관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IPTV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양국간 콘텐츠, 기술, 서비스, 정책 측면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가나의 경우 '08년 3월부터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2년까지 1만명 가입자를 목표로 하는 등 아직은 가입자 수준이 미미한 실정이다. 금번 MOU 체결과 양자회담을 계기로 가나와 우리나라 간 IPTV 관련 협력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금번 MOU 체결을 통하여 국제기구에서의 정책공조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위원장은 가나의 통신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14년 ITU 전권회의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가나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가나의 통신부 장관은 지지의 의사를 표시했다.

향후 ITU 전권회의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격제고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나의 하루나 이드리수 통신부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대응센터 등을 방문한 후 26일 출국하게 된다. 끝.